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2018.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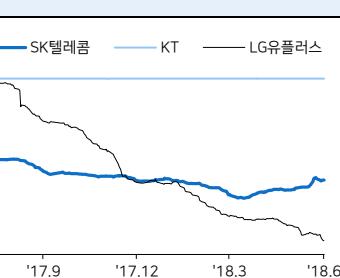
1

주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KOSPI	-1.9	-4.2	-2.5	-3.4	9.2	9.2	1.0	1.0	2.1	2.1	
통신업종	2.5	6.5	8.1	-7.4	7.9	7.9	0.8	0.8	3.8	3.8	
SK텔레콤	3.2	7.8	5.9	-11.7	6.7	6.9	0.9	0.9	4.2	4.2	
KT	-2.1	1.7	2.4	-10.8	10.0	9.5	0.6	0.5	3.9	4.2	
LG유플러스	7.8	13.8	16.5	0.3	11.5	10.4	1.1	1.0	3.0	3.2	
AT&T	-4.4	-2.0	-8.7	-18.6	9.3	9.2	1.4	1.4	6.3	6.5	
Verizon	3.5	2.4	7.5	-6.4	10.9	10.7	3.7	3.1	4.8	4.9	
T-Mobile	1.3	6.6	1.8	-4.4	19.1	15.5	2.2	2.0	0.0	0.0	
Sprint	0.2	7.0	11.8	-2.5	28.4	N/A	0.9	0.8	0.0	0.0	
NTT Docomo	-1.0	-0.3	4.7	5.7	14.4	14.4	1.8	1.7	3.5	3.8	
KDDI	-0.0	2.6	14.7	7.5	12.9	11.9	2.0	1.8	3.0	3.3	
Softbank	0.9	1.3	3.7	-6.3	8.4	16.1	1.8	1.5	0.5	0.5	
China Mobile	-2.5	-6.1	-3.0	-11.9	10.1	9.9	1.1	1.1	4.8	5.0	
China Unicom	-3.1	-10.5	4.5	-6.8	28.0	17.6	0.8	0.7	1.5	2.3	
China Telecom	-3.8	-5.7	7.0	-6.7	11.6	10.4	0.7	0.7	3.6	3.9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SK텔레콤 41.5% (-0.1%p WoW, +0.7%p MoM)

KT 49.0% (Flat WoW, Flat MoM)

LGU+ 37.0% (-0.4%p WoW, -1.0%p MoM)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율 전주 대비 소폭 하락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6월 셋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4.4%p 수익률을 기록하며 Outperform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방어주인 통신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지속 국내 5G 주파수 경매가 이를 만에 조기 종료되며 주파수 관련 투자 불확실성 마저 해소 국내 기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순매수, 외국인은 LG유플러스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3년 간 지속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27일 일몰 예정 합산규제 일몰 시 유료방송 시장 내 KT와 KT스카이아이프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강화 예상 또한, CJ헬로와 현대HCN 등 케이블TV 상장사들의 인수가치 매력이 부각될 전망 11번가 분사를 결정한 SK텔레콤은 적정기업가치 평가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7	18 국내 5G 주파수 경매 종료	19	20	21	22	23
24	25	26	27 유료방송 합산 규제 일몰	28	29	30

3

주간 뉴스

▶ 주파수경매, 3조6000억원에 종료...이통3사 5G전략 본격화

(전자신문)

-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최저경쟁가격보다 3,423억원 상승한 3조 6,183억원에 낙찰
- 3.5GHz 대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100MHz, 100MHz, 80MHz로 분배
- 5G 주파수 사용 시기는 12월 1일부터이며, 이르면 10월부터 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
⇒ 5G 주파수 경매가 크지 않은 가격 상승 폭에 조기 종료되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
⇒ 통신장비 배송이 12월 1일 전 마무리 되어야 하는 만큼, 11월에는 5G 통신장비 출고 전망

▶ 5G 전송비율 '화웨이'식으로.. 장비 도입 초읽기

(아시아경제)

- 22일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이통 3사는 '5G 데이터 상/하향 전송 비율'을 4대 1로 확정
- 개발 중인 화웨이 장비는 4대 1 기준인 반면 삼성전자는 8대 2를 기준으로 하다가 뒤늦게 전환
- 통신 3사 입장에서 5G 상용화가 시급하나, 삼성전자 장비의 경우 점검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한편, 화웨이는 경쟁사보다 기술력이 3~6개월 앞서는 반면 가격은 20~30% 저렴하다는 평가
⇒ 반면, 미국 및 호주는 보안/안보 측면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SKT, SK플래닛 구조 재편... 11번가 5000억원 투자 유치

(Digital Times)

- SK텔레콤, 19일 이사회에서 SK플래닛의 11번가를 분리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안건을 승인
- OK캐쉬백, 시럽 등 데이터 기반 마케팅 플랫폼과 SK테크엑스를 합병하는 안건 역시 승인
- 11번가 신설법인은 사모펀드인 H&Q코리아로부터 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 7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을 거친 뒤 9월 1일 양 법인 출범 예정
⇒ H&Q코리아는 11번가 전체의 기업가치를 2.3조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추정

▶ 보편요금제 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ZDNet Kore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핵심으로,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 과기정통부는 법률 개정 이전에라도 이통사와 협의해 요금제 개선 등의 노력을 병행할 계획
⇒ 국회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
⇒ 통신 3사는 최근 자발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보편요금제 법안에 대응 중

▶ 시동 건 5G 네트워크 보안도 꼼틀... "500억 시장 열린다"

(Digital Times)

- 5G 주파수 경매가 끝난 가운데 5G 500억 규모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
- 국내 네트워크 보안장비 시장은 시큐아이(19%)와 안랩(17%)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 포티넷, 팔로알토 등 외국계 업체들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5G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
⇒ 시큐아이의 점유율은 2014년(40%이상) 이후 감소해왔으며 외국계 업체의 점유율 확대 중
⇒ 망 자체가 폐쇄적이었던 LTE 대비, 개방형 설계 기반의 5G에서는 보안장비의 중요성이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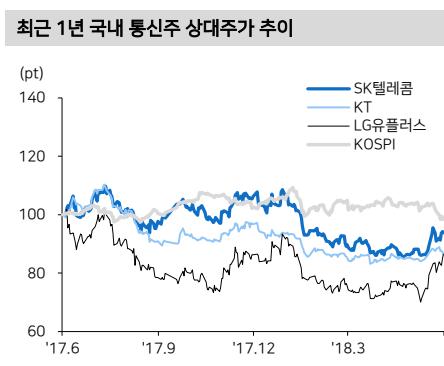
▶ 넷플릭스-방통위, 면담 무산...넷플릭스 즉 일방 취소

(New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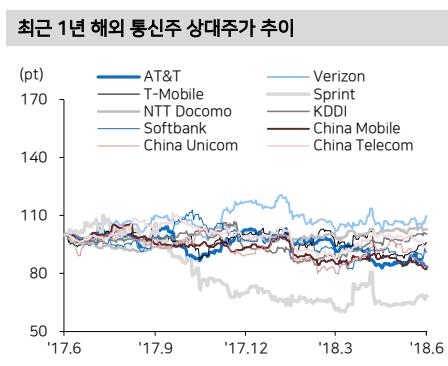
- 18일 넷플릭스는 방통이 어렵단 이유로 21일 예정된 방통위와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
- 넷플릭스 고문변호사는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규제 체계를 검토했을 예정이었으나,
- 넷플릭스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추후 면담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음
⇒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에게 국내사업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 즉
⇒ 방통위와의 면담 불발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상업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2018E	2019E	
한국	SK텔레콤	242,000	17.6	15.6	15.9	1.3	1.3	2.6	2.5	4.2	4.3	5.2	5.0	15.0	13.0
	KT	27,700	6.5	21.2	21.5	1.2	1.3	0.6	0.7	4.3	4.4	2.6	2.5	5.8	5.9
	LG유플러스	14,450	5.7	11.1	11.3	0.7	0.8	0.5	0.5	2.3	2.4	3.6	3.4	9.9	10.0
미국	AT&T	31.7	232.2	158.3	160.0	30.9	31.2	21.3	22.3	51.3	52.0	6.8	6.7	14.8	16.5
	Verizon	49.8	205.6	129.3	130.6	30.0	31.0	18.7	19.4	47.4	48.4	6.8	6.7	40.3	34.8
	T-Mobile	60.8	51.5	43.1	45.3	5.4	6.1	2.8	3.3	11.8	12.8	6.9	6.4	12.3	12.4
	Sprint	5.5	22.1	32.4	32.7	2.6	2.4	5.5	-0.2	11.1	11.7	4.9	4.6	14.1	-0.4
일본	NTT Docomo	2,830	97.4	44.2	44.0	9.1	9.2	6.7	6.4	13.9	14.0	6.8	6.6	12.6	12.0
	KDDI	3,037	69.9	45.8	46.7	9.0	9.3	5.3	5.6	14.1	14.4	5.8	5.6	15.6	15.7
	Softbank	8,397	84.1	83.8	84.7	11.6	11.0	9.9	4.9	25.0	24.7	8.8	8.9	22.0	9.4
중국	China Mobile	68.7	179.3	117.9	121.4	19.0	19.4	17.8	18.3	43.0	44.4	2.5	2.4	11.6	11.3
	China Unicom	9.8	38.2	43.9	46.3	1.7	2.6	1.3	2.1	13.7	14.7	3.2	3.0	2.8	4.4
	China Telecom	3.5	36.1	59.3	61.5	4.7	5.1	3.1	3.5	16.3	17.0	3.0	2.9	6.1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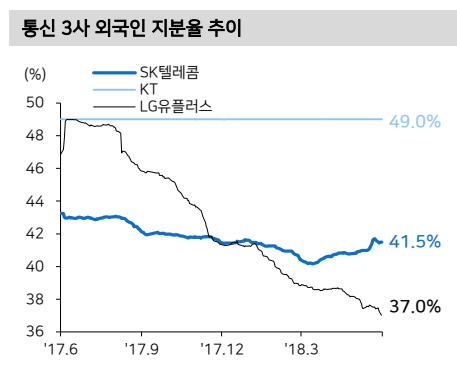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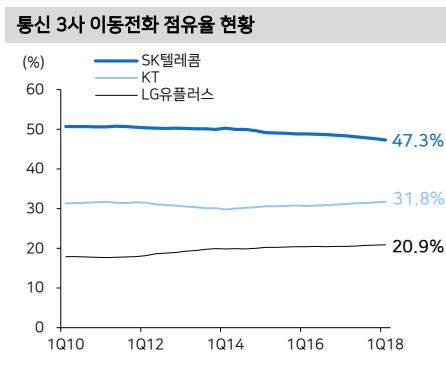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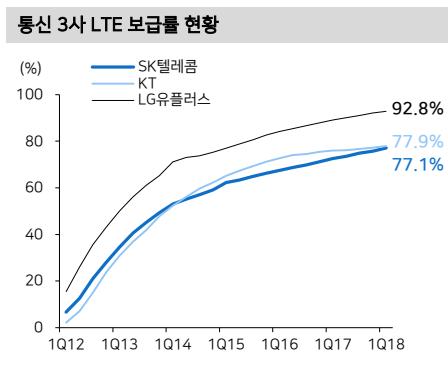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WiseF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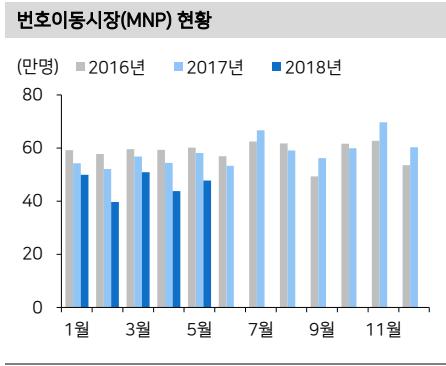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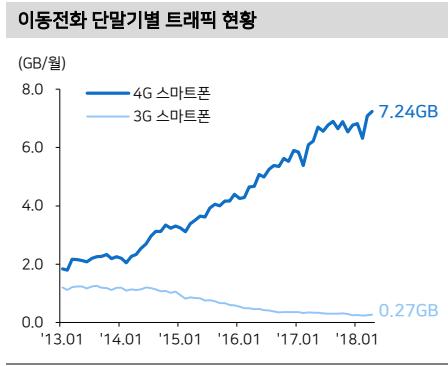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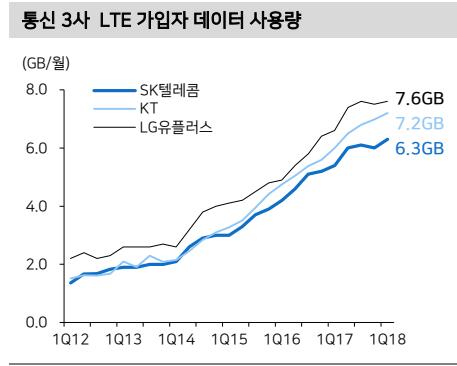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6월 2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